

# YWCA는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희망입니다



## Y-틴 전국회원대회

**주제** 인권에 나이는 없습니다  
**일시** 2017년 8월 8일(화)~9일(수)  
 1박 2일 프로그램  
**장소** 충주 청소년수련원  
**문의** Y-틴위원회(02-774-9702)

##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

**주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년  
**일시** 2017년 8월 3일(목)~5일(토)  
 2박 3일 프로그램  
**장소** 충주 청소년수련원  
**문의** 대학·청년Y위원회(02-774-9702)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역협력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 한국 YWCA

2017년 6월호  
 June  
 Vol.541

### 기획

시대정신은 성평등, 유리천장 깬다

### 특집

종교개혁 500주년, 성평등의 길을 묻다  
 교회 성차별과 여성혐오 '위장된 소명, 감춰진 차별'

### 칼럼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청년

'강남역 사건' 그후 1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 “혼인신고를 하자, 축첩자에 투표말라” 여성권리찾기 서막을 열다



1960년 축첩폐지 거리캠페인

YWCA는 1925년 사회문제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판사인 이태영씨를 영입해 사회문제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축첩과 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계몽방법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겼다. 정부수립 후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시했지만 법률은 고쳐지지 않았고, 봉건시대 유물인 '일부다처' 명령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아내들이 호적에 올라있지 않아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3년 가족법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법개정운동에 나섰다.



YWCA가 제작한 혼인신고운동 포스터

이어 1958년 제20회 전국대회에서 '혼인신고 강조운동'과 '축첩공무원 정비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했다. 훗날 호주제 폐지와 가족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여성인권운동의 물꼬를 트는 순간이었다. 혼인신고운동은 1959년 1월 이희호가 총무를 맡으면서 본격화되었다. 그해 4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자”는 슬로건 아래 강연, 좌담회를 열고 만화, 포스터, 소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 당시 대한YWCA연합회 사회문제부가 제작한 포스터는 결혼한 여성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혼인신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었다. 한국의 혼인신고운동은 박에스더 선생의 영문 뉴스레터로 세계YWCA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도 보고되었다. 서울YWCA는 문교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축첩공무원 정비운동'은 사회지도급 여성들이 일제히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에 나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YWCA는 당시 공무원, 국회의원 중 첩을 두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음을 확인하고 각 여성단체와 교회에 알려 시위를 계획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총선을 앞둔 7월 19일 서울 시공관(市公館, 현재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계몽강연은 선거와 연결한 한국 여성운동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날 2,000명의 여성들은 '축첩자에 투표 말라, 새 공화국 더럽힌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명동, 종로에서 맹렬한 거리시위를 벌였다. 2005년 호주제 폐지로 YWCA가 1920년대부터 펼친 여성권리찾기는 또 하나의 결실을 거두었다.

## 2017.6 한국YWCA



### 표지이야기

5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17 여성평화걷기'에 참석한 YWCA 회원들이 '평화의 조각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17년 7·8월 주요일정

#### 7월 6일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4차포럼

#### 7월 13일

제3차 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모임

#### 8월 3일~5일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

#### 8월 8일~9일

Y-틴 전국회원대회

#### 8월 22일~25일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제53권 제5호 통권 541호

2017년 6월 26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한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이기원·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종교개혁 정신과 성평등 | **곽지영**
- 05 **말씀 묵상** 고통의 기억과 저항 | **안선희**

### '여성과 평화'

- 06 **기획①** 시대정신은 성평등, 유리천장 깬다 | **박길자**
- 08 **기획②** 좌담 : 새 정부 여성정책과 YWCA 성평등운동 | **성평등위원회**
- 10 **기획③** 2017 여성평화걷기, 여성평화심포지엄 | **편집실**

### '종교개혁 500주년과 성평등'

- 12 **특집①** 종교개혁 500주년, 성평등의 길을 묻다 | **최만자**
- 14 **특집②** 교회 성차별과 여성혐오 '위장된 소명, 감춰진 차별' | **김수진**

- 16 **칼럼**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조호연**
- 18 **성평등** 세계는 왜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나서나 | **문윤희**
- 20 2017 '동일임금의 날' YWCA 캠페인
- 21 **이슈** 대선 이후 YWCA탈핵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원영희**
- 22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의 날 | **편집실**
- 24 **청년** 인터뷰 : '강남역 사건' 그후 1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 **대학·청년Y**

- 26 **이달의 현장①**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3차포럼 | **이복희**
- 28 **이달의 현장②** 대한민국은 '가사노동자 특별법'에 응답하라 | **편집실**
- 30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고양YWCA '다른 시선, 다른 목소리' | **남궁혜경**
- 32 **원로에게 듣는다** 조규혜 광주YWCA 명예이사 | **편집실**
- 3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오두막', 눈부신 기적이 시작되는 곳 | **신 선**
- 36 **연합회 소식**
- 38 **회원YWCA 소식**

# 종교개혁 정신과 성평등



**곽지영**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장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성의 교회 문에 붙였다. 이 반박문은 독일 민중을 계몽했고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당시 종교개혁의 본질은 제도화되고 각질화된 권력종교, 주류권력에 기생하는 종교권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저항이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회고적이거나 연례행사용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한국 교회의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거나 누적된 적폐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없다. 다윗이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서 적폐청산이 언급된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도 적폐청산(積弊淸算)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정리해버린다, 깨끗이 해결한다'는 뜻이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95주년을 맞은 한국YWCA의 적폐청산 과제는 무엇일까. 성평등한 기독교 공동체 회복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초대 교회는 모든 인간이 형제자매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발적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실현했다. 봉건주의가 유세를 떨치던 19세기 말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가르친 해방의 복음이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사회는 여성혐오 문제로 시끄럽고, 한국 교회는 여성차별이 내재된 낙후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다. 여

성차별과 가부장적 문화는 여전하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여성주의'는 더 많은 여성의 목소리들이 연결되고 연대하며 '모든 성은 평등하다'는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대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회에서도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에 두는 신앙을 확립해야 진정한 하나님나라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자각이 조금씩 일고 있다.

올해 YWCA 생명비전연구소는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100주년 비전을 준비하는 한국YWCA가 성평등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다. 우리는 기독교여성주의의 필요성, 기독교여성주의의 역사, 성서 속 여성들의 모습, 교회 안팎의 성차별과 여성혐오 경험, 기독교인들이 극복해야 할 성차별과 여성혐오 등을 살펴보았다. 기독교 내 여성혐오와 차별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2000년 전 예수가 가르친 윤리대로 배제된 약자의 외침을 경청하고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할 사명이 YWCA에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종교개혁 정신을 지금의 시대정신인 '모든 성은 평등하다'는 가치로 재조명하는 일은 YWCA에 주어진 시대의 요구일 것이다. 성평등 정신의 구현은 종교개혁 정신의 실천이자 완성의 길이다. 

# 고통의 기억과 저항



**안선희**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교수

## 사사기 19장 22절~20장 5절

성읍의 불량배들이 문을 두들기며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매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더라.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시체 마디를 찍어 열두덩이에 나누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귀향>은 1943년 일본군에 의해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위안부' 소녀들의 시신이 산속 구덩이에서 불태워지는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서 이야기도 매우 끔찍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불량한 기브아 사내들이 레위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협박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자는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성경은 레위남자가 '자기 첩을 꼭 붙잡아서 밖으로 밀어내었다'고 표현합니다. 첩은 집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밤새 그녀를 윤간했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내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던 남자는 불량배들에게 잡힐까봐 아침 일찍 도망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 자신의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쓰러진 여자를 일으키려 하지 않고 곳곳이 서서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숨이 끊긴 것이지요.

그는 그녀를 고이 매장해주지 않습니다. 슬피하거나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열두 토막으로 내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도록 자극합니다. 남자는 불량배들이 자신에게 납색을 강요한 것을 숨기고, 단지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면 첩을 내어준 것을

은폐합니다. 왜곡과 은폐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판단을 흐립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은 레위남자의 첩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녀들은 수십 년 세월을 걸쳐 집 앞에 간신히 다다라 날이 밝기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뻗뻗이 선 채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위안부' 소녀들이 밤새 짓밟히고 농락당했는데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일찍이 기브아를 떠날 채비를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용당하고 버려진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관계없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되려고 하느냐?" 유명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웃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 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레위남자의 첩,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기독교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 때 고통 받는 여성들은 밤새도록 문지방을 잡고 절규하다 지친 모습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역압받는 여성들의 고통,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기억합시다. 고통의 기억이 저항의 출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시대정신은 성평등 유리천장 깬다



박길자  
여성신문 기자

지난해 강남역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진 '5·17 페미사이드(여성살해)' 이후 성평등과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를 달군 핫뉴스로 떠올랐다. '촛불 대선'이 치러진 올해는 성평등 이슈가 더 화제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촉매제가 됐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만든 촛불 광장에서 여성들은 어느 때보다 또렷한 목소리를 냈다. 여성혐오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도 커졌다. '촛불 혁명'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곧 성평등 정부의 출발이었다.

## 새 정부의 성평등 행보, '유리천장' 깬다

문 대통령은 4월 21일 여성신문과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나와 성평등 서약서에 서명하고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공약하면서 "내각 구성시 장·차관을 포함해 30%에서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녀동수 내각 구성이 세계 추세인데도 한국은 최하위로 중동국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대표성의 불균형이 민주주의 완성의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발표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인 15.3%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계획 수립도 내놨다. 여성혐오, 데이트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내각과 청와대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는 성평등 행보가 이어졌다. 청와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기용했고, 70년 외

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인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최초 여성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발탁했다. 여군 첫 헬기조종사였던 피 처장은 유방암 판정 이후 군으로부터 강제전역을 당하자 소송을 걸어 복직을 이뤄낸 '철의 여인'이다. 군 출신 중 처음으로 영관급에서 발탁된 여성 보훈처장에 국민은 지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김현미 의원이 발탁됐다. 여성 인사를 끼워 파는 액세서리로 취급하지 않고 주요 부처 수장으로 발탁해 '여성 30%'를 이뤄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남녀동수 내각 실현 공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성 대표성 강화가 정치와 민간부문의 '남녀동수 대표성'으로 확대될 지도 관건이다. 여성들의 일상에서 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유리천장이 와장창 깨져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 성평등국가가 최고의 복지국가 된다

국제사회에선 성평등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사회의 변화는 뒤늦은 감



3월 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2017 페미니스트 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성평등 관점의 민주주의 실현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 있다. 가부장제 유교문화가 생활 곳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해부터 여성뿐 아니라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는 남성들의 '페밍아웃'(페미니스트+커밍아웃) 현상이 나타났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이자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시대정신이란 말은 철학적으로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을 가리킨다. 유신독재 때는 민주주의 달성이 시대정신이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50년의 짧은 역사에서 성취한 대한민국은 이제 성평등이 시대정신이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잘 믿기지 않는다면 북유럽을 찬찬히 볼 필요가 있다. 북유럽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삶의 환경이 높아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나라로 꼽힌다. 그런데 북유럽은 복지국가 이전에 성평등국가다. 현재 스웨덴의 외교부, 재무부, 사회복지부 등 주요 장관이 여성이다. 노르웨이를 봐도 수상, 재무부 장관, 국방장관을 여성이 맡고 있다. 내각 여성장관 비율은 50%

에 이른다. 북유럽 5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41.7%이다. 성평등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이 노동에서 겪는 성불평등을 보면 암담하다. 시간당 임금에서 남성 정규직이 100이라면 여성 비정규직은 3분의1 수준인 35.4%에 불과하다. 1987년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으로 보장됐지만, 여전히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60%에 머문다. 여성 노동자의 17.4%, 여성 비정규직의 28.5%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실질적 성평등이 자리 잡으려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정의 실현과 낙태죄 전면 폐지, 젠더폭력 방지체계와 법제도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성이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면 갈등이 줄어들고, 부패는 사라지며, 생산성은 높아진다. 성평등 사회는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다. 일·가정 양립이 이뤄진다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 혜택을 누린다.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녀 모두를 위한 길이고,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인 것이다.

# ‘위안부’ 재협상, 시급한 과제

**성평등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김난주 · 김은주 · 문미란 · 박현숙 · 송영란 위원  
**진행** 신미희 홍보출판부장 이주영 성평등부장  
**일시 · 장소** 2017. 6. 15(목) 연합회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권리찾기, 여성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성폭력예방, 남녀차별철폐, 가족법개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다양한 여성운동을 펼쳐온 YWCA에 2017년은 각별하다.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성평등위원회에서 YWCA 성평등운동의 과제를 살펴봤다.



성평등위원회 좌담 (왼쪽부터 김은주 위원, 김난주 위원, 박현숙 위원, 신미희 홍보출판부장, 김은경 위원장, 문미란 위원, 송영란 위원)

를 꼭 달성하길 바란다.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일본군 ‘위안부’ 재협상이다. 이 문제만큼은 시간을 미뤄선 안 되고, 새 정부 1차년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여성중용’ 인사가 성평등정책에 끼칠 영향은?

**문미란** ▶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꼴찌였다. 임금격차, 교육참여율, 여성임원 비율 등으로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받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주요 역할이 필요한 곳에 여성장관을 기용한 것은 여성참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이런 노력이 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송영란** ▶ 여성인사 발탁은 다음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지금은 초기니까 눈에 띄지만 중간 중간 사람이 바뀔 때가 올 텐데, ‘남녀동수 실현’ 목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 ‘성평등 관점’의 인사가 왜 중요한가?

김은주 :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 자체가 중요한 계



김은경 위원장 김난주 위원 김은주 위원 문미란 위원 박현숙 위원 송영란 위원

아니고, 어떤 여성인가를 봐야 한다. 지금까지 발탁된 여성들은 스스로 유리천장을 깨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고, 나름 여성운동을 하면서 젠더의식을 키워왔다. 이들의 기용은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젠더관점의 정책추진에 의미가 있다. 남녀의 ‘차이’를 반영하고, ‘차별’을 찾아내는 과정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문미란** ▶ 여성들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앞서가는 여성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사회 전반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 뒤를 이을 후배랄까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여성을 계속 발탁해야 한다.

**김은경** ▶ 지금 인선되는 여성들은 젠더로 훈련된 여성들인데, 남성들은 아쉬운 대목이 많다. 성차별 인식과 여성비하 인사 등으로 비판 받는 남성들을 보면 ‘성평등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 인사기준에 성평등 관점이 정말 필요하다.

### ‘문재인정부 정책실천 평가단’을 꾸리자

###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김난주** ▶ 임금격차에 한국 여성의 모든 지위가 집약돼 있다. 경력단절로 경력을 유지한 여성들이 적으니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고 임금을 차별받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는 못 가더라도 성별임금격차부터 해소해야 하는데, 경력단절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30대 여

성 경제활동 참여가 절벽처럼 끊어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송영란** ▶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독박 육아’에 있다. 여성 혼자 짊어지고 있는 육아돌봄을 남성과 나누는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보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김난주**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7% 수준이다.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 설립규정을 보면 남성근로자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돌봄은 여성이 한다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냥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 YWCA 성평등운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박현숙** ▶ 가정내 성평등도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늘고 있는데 기소율, 구속율은 떨어지고 있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현장의 법 적용엔 사각지대가 많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 가해자 처벌 강화 등에 YWCA가 적극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김은경** ▶ 성평등정책 공약이 지켜지도록 YWCA 활동을 계속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정책의제를 내는데 회원YWCA가 큰 역할을 한 만큼 선거 이후 정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문재인정부 정책실천 평가단’ 같은 활동이다. 정책이 현실이 될 때까지 YWCA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 여성의 힘으로 '상호공존'의 평화를

편집실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행진 2017 여성평화걷기가 5월 27일(토)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렸다.

YWCA를 포함한 30개 여성·평화단체로 구성된 2017 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공동대표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 땅에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며 한반도를 전쟁 없는 땅, 생명·평화·상생의 땅으로 만들고자 여성평화걷기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분단 1·2·3·4세대 여성들과 시민들,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해외 여성운동가 등 800

여명이 참가했다. YWCA는 고양, 남양주, 부천, 서울,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청주, 파주, 하남 12개 YWCA에서 130여명이 참여했다.

평화의 열림(인사말, 축사, 길놀이)으로 시작해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걷기를 거쳐 평화의 어울림(선언문 낭독, 평화합창)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평화 플래시몹, 풍물패 공연, 평화기원 오방천 대동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평화와 협력으로 남북화해 물꼬를 트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것,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영구평화의 초석을 놓을 것, 한반도와 세계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 리더십을 확대할 것을 선언했다. 



YWCA는 12개 회원YWCA에서 130여명이 참여했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평화걷기에 나섰다.



김숙희, 신희운 명예연합위원(왼쪽부터)이 생태탐방로를 걷고 있다.



평화통일위원회 이진용(가운데), 박영순(오른쪽) 위원



여성평화걷기에 참석한 YWCA 회원들이 '평화의 조각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여성평화걷기대회



철조망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행진

##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

# 평화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들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은 축적된 여성들의 평화역량 발휘를, 이진옥 여세연 대표는 군사안보 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사람 중심의 여성안보를,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는 문화프로그램(걷기, 춤, 노래 등)을 통한 평화담론 확산을,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대표는 종교간 연대와 종교내 여성평화운동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DMZ 여성평화생태마를 조성을 위한 바리데기 프로젝트를, 최인숙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는 상호공존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남북간 문화소통을 제시했다.

2017여성평화걷기조직위원회는 5월 24일(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전쟁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여성평화심포지엄을 열었다.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평화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남북대화 즉각 재개, 평화통일 정책과정 남녀동수 참여보장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했다.

# 종교개혁 500주년 성평등의 길을 묻다

최만자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 종교개혁은 미완의 개혁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로마 가톨릭교회 교리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문서를 게시하고 그 거대한 가톨릭 세력에 도전함으로써 시작된 개혁운동이다. 루터가 주창한 종교개혁 본연의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총’, ‘만인사제론’에서 나타난다.

로마 교황체제의 성서 해석권 독점, 교황과 사제권력의 절대화, 그로 인한 성직중심주의로 사제들이 교인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횡포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서’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신앙 원천이요 규범이며, 어느 것도 성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음을 주장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총’은 로마 가톨릭교회 구원론에 대한 도전이다. ‘오직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의로움(칭의론)’의 신학을 제시했고, 종교개혁의 핵심신학이고 종교생활의 요점이다.

만인사제론은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중심주의와 사제중보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성도들은 오직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웅변한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교회 계급구조를 무너뜨렸고 평등의 질서를 지향했다.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으로 확장되었다. 농민, 단순 기능공 등 사회적 약자들과 여성들은 억압이 극복되는 세상을 열망하면서 개혁대열에 열광적으로 참여했다.

종교개혁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신앙운동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했다. 인간해방, 평등가치 지향의 관점에서 신앙과 교회와 세계에 대한 해석도 새롭게 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할까. 500주년을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은 미완의 개혁이었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삶과 관련해 보면 종교개혁은 성평등의 길을 활짝 열지 못했고 막아버린 경향이 있다. 가부장적 관점에 대한 무비판적 의식 때문이다.

## ‘성서 문자주의’ 넘지 못하면 성평등은 없다

중세교회는 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결혼을 평가절하했다. 여성의 성, 육체를 비하해 여성들의 삶은 성 억압적이고 위축된 것이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결혼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성억압을 벗어나 여성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남녀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성억압적 질서가 강화되었다. 여자는 결혼을 해야만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남편에게 예속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철저한 가부장적 질서가 가두었다. 가부장적 관념의 변화 없는 종교개혁 안에서 성평등은 불가능했다.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으로 여성들이 근대여성운동을 일으키는 발판을 마련했고, 수녀원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사회일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평가다. 종교개혁을 이끈 남성들과 함께 모임에 참여한 부인들이나 연고를 가진 여성들이 개혁활동에 열렬히 참여했다.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돌



인간해방을 지향한 종교개혁은 성평등의 길은 열지 못했다.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다룬 영화 ‘루터’의 한 장면.

보는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여성들의 삶이 확장되었다. 루터 부인 카타리나의 리더십 영향도 컸다. 결혼이 성사에서 배제되어 이혼의 가능성도 열렸다.


루터의 ‘오직 성서’ 정신은 중세 사제권력을 무너뜨리고 오직 성서에 권위를 두자는 것이었지만, 성서 문자주의를 강화하는 근거가 되어 종교개혁 당시는 물론 오늘 개신교회에 이르기까지 성서 권위로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성서 문자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기독교에 성평등의 길은 없다. 개혁운동 과정에서 남녀평등 논제는 중요했지만 루터 자신이 ‘평등은 하되 질서가 있어야 하며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창조 질서’라는 정의를 내렸다.

## 여성신학을 통한 기독교 성평등의 길찾기

종교개혁 당시 성평등이 실제로 실현된 것은 재세례파 종교개혁운동에서였다. 재세례파는 진정한 세례는 자기의 신앙고백에 바탕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사회혁명적 경향을 가졌다. 여성들에게 복음의 선포권을 주었고,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개혁의 물결을 보면서 여성들은 적극 참여했다. 서로 돕고 돌보며 남녀가 같이 음식을 해먹었다. 여성들이 종교생활의 중추역할을 했

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도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주변상황 변화와 조직자체의 제도화 과정을 겪으며 가부장적 남성중심 질서로 고착되고 자율적 여성들의 위치는 사라졌다. 종교개혁의 성평등 길을 찾으려면 재세

례파 여성활동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오직 은총’의 종교개혁 신학도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개혁신학은 ‘가해자’ 입장에서 은총만을 생각했으므로 이제는 피해자 입장의 은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신학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해를 여성의 경험에서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만인사제야말로 종교개혁의 평등정신을 웅변하는 신학임에도 개신교 역사는 정반대로 ‘남성만의 만인사제’ 길을 만들었다. 여성 성직수여를 거부한 개신교 안에서 성평등의 길을 찾고자 투쟁한 여성들의 역사를 찾아내고 진정한 종교개혁의 길이 여성들에게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500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종교개혁은 성평등의 길을 열기보다 그 길을 막는데 영향을 준 개혁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평등의 길찾기는 여성신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성신학은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기독교 전체를 위한 평등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 ‘위장’된 소명, 감추어진 차별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간사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는 ‘여성이 불안한 시대. 기독교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5월 25일(목) 제4차 모임에서는 ‘교회 안팎의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경험’을 주제로 백소영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강의했다.

##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가 여성의 소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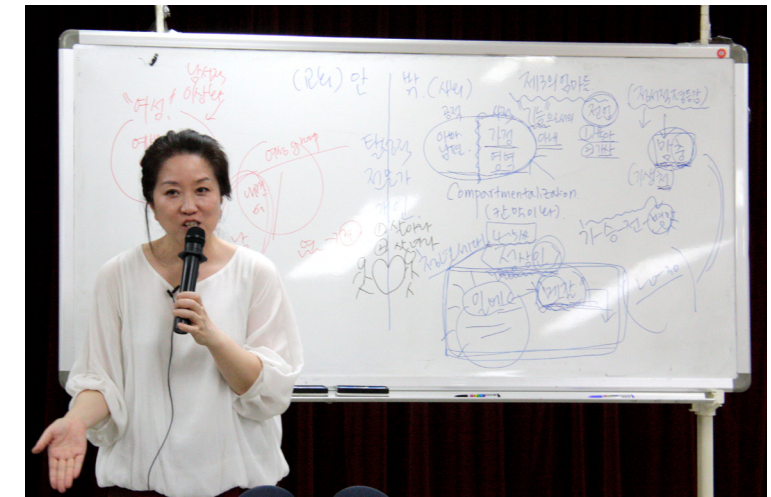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와 ‘여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만 사회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비하와 혐오의 시선은 물론이고 강간, 살해 위협과 같은 공포를 일상에서 마주하며 살아간다. 사실 오늘을 특별히 ‘여성혐오 시대’라고 할 수 없다.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은 늘 존재했기 때문이다.

백소영 교수는 “최근 수년 사이 유난히 불거진 여성혐오는 5,000년 가부장 문화가 가진 남성우월주의 관성과 21세기 전문성 위주 탈성적 관료제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이 진취적 여성들에게 갖는 상대적 박탈감의 ‘불행한 합류’ 때문”이라면서 “내 것(이라고 믿는 기독교) 지키기’ 목소리”로 풀이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교부(敎父)시대 남성 종교지도자들의 권위는 가부장적 권위를 넘어 신적 권위까지 차지하고 수천 년간 여성비하와 혐오를 정당화해왔다. 이런 담론과 사회위계가 단단히 자리잡고 있던

사회에서 자란 교회여성들에게 침묵과 인내는 당연했다. 그러나 탈성적 전문가 개인<sup>1)</sup>으로 능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해온 여성들에게 여전히 가해지는 비하적이고 혐오적인 응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혐오를 혐오하는 많은 여성들과 이를 지지하는 소수의 남성들이 ‘그래도 되는 존재’와 ‘당연한 것’은 없음을 외치며 사회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중세 교부시대 여성은 남자를 타락하게 만든 주범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겼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계기로 기독교에서는 여성성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17~18세기 개신교 교회에서는 독신보다 결혼이 더 우수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는 귀한 상태로 선포된다. ‘신앙’, ‘영성’ 그리고 ‘구원’까지도 남성과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여성을 예찬했다. 그들이 열렬히 찬양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는 여성들이 창조된 이유이자 ‘소명’이었다.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제4차모임  
◀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시대 뿌리 깊은 여성혐오 의식을 표현한 그림 '마녀의 언덕'

## ‘신적 질서’로 위장한 성역할 분담의 해체


하지만 이것은 위장(偽裝)된 소명이다. 차별은 감추어졌을 뿐 계속 이어졌다. 여전히 ‘여성성’ 예찬의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은 남성이고, 찬양 받는 여성은 단지 ‘아내’로서의 여성으로 그 남편을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남편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남편과 아내는 ‘위계적 평등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 말한다. 적대적이었던 모습이 온화하게 포장되고 낭만화 되었을 뿐 내면에는 기독교의 가부장적 요소가 그대로 살아있다.

21세기 교회에서도 위장된 소명은 계속되고 있다. 한 대형교회 가정주간에 배포된 ‘가족사랑 실천노트’를 보면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기, ‘당신 말이 다 맞아요’라고 맞장구치기”로 규정하고, 신실한 기독교 여성의 사랑실천 행위로 가르친다.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학교 세미나에서는 ‘남편을 킹(King)으로, 가정을 킹덤(Kingdom)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남편의 정체성을 왕처럼 회복시켜야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다. 여성의 복종

을 신적 질서로 포장하며 ‘차별’을 ‘질서’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신적 질서에 의해 ‘돕는 조력자’로서 삶을 사는 아내로 여성을 창조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한 것은 150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적 질서로 위장한 성역할의 분담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해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성차별을 끊어낼 수 없다.

이제 ‘탈성적 전문가 개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사회는 구성원들을 성(sex)으로가 아닌 한 전문적 개인으로 응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세계에는 공동체가 없다.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다.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상호관계 속의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여성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함한 교회의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감춰진 차별을 드러내고 사람이 세운 ‘신적 질서’를 무너뜨려 남녀 사이 위계와 차별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1) 백소영 교수가 펴낸 <엄마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대한기독교서회, 2009)에서 사용한 사회학적 용어다. 현대 관료제는 성별을 벗어 버린(脫)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허용하는 시스템이고, 삶의 형태가 ‘개인’일 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극대화된다는 뜻이다.

#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

6·15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만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한 것이 수백 년 전의 일처럼 까마득한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환경이 그만큼 엄혹하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미국·중국 간 패권갈등으로 요동치고 있다. 어디를 봐도 만만한 구석이 없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내부 여건과 역량은 신통치 않다.

## 외교안보 1순위 '남북관계 개선'

그럼에도 남북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민족동질성을 고양하고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남북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렛대 역할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진전에 기여하고, 북핵 진전이 다시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우선적인 외교안보 현안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 정세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핵 문제가 세계적인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지금 국제사회 흐름을 도외시한 채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당장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당국·민간을 불문하고 대부분 교류창구가 끊긴 상태다. 남북 사이에는 언론을 통해 거친 대결과 갈등의 인사만 오가고 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도 1년 6개월이 돼 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했지만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재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대외여건도 매우 좋지 않다.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 북한은 버틸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핵폐기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을 표방했지만 관여는 없이 압박만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면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북핵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란 점을 미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웹비어가 귀국 9개월 만에 숨진 사건도 상당 기간 미국의 대북여론을 악화시킬 게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여건 조성이 더 우선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대북정책 명칭이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구상에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완전



YWCA는 1997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분유, 내복 등을 보내며 북한어린이돕기를 계속 벌이고 있다. 사진은 2014년 1월 14일 인천항에서 열린 북한 어린이돕기 분유전달 출항식.

한 핵폐기, 평화협정 체결, 기존 남북합의 법제화, 대북 압박과 동시에 당근도 제공하는 동시행동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영원히 남북관계를 풀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 북한 제재와 압박정책은 실패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북한의 강력한 반발,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대칭적 관계가 조성됐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고 북핵 정세에 변화가 나타나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면서 남북교류를 재개할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6월 말 열리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그것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류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있고, 평양 등 대도시에 음식점과 상점이 크게 늘어났으며, '통일시장'은 문전성시라고 한다. 일정 부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일한 만큼 벌게 해주는 시장화 개혁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의 호전현상은 북핵 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

당위원장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이 노선을 선언했을 때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 워낙 북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경제회생을 막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상최대 제재와 압박 속에서 병진노선에 성공함으로써 제재와 압박 정책의 실패를 입증했다.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제재와 압박의 실패를 인정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장기적으로 북핵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체제 변화는 불가피하다. 북핵을 억제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압박과 제재의 강화가 아닐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이 남북대화화 남북교류 재개에 기여하는 쪽이 될 것이란 점도 예상 가능하다.

시민사회는 당국과 함께 대북교류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돼야 한다. 과거에도 당국이 막히면 시민사회가 뚫고, 시민사회 대북교류를 당국이 지원하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당장 북한이 시민사회의 대북접촉을 거부했지만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북한이 국제기구의 보건관련 지원물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북 민간교류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멀지 않아 남북교류의 문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 세계는 왜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나서나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인턴

YWCA는 2014년부터 고용평등주간에 맞춰 '동일임금의 날' 제정추구 캠페인을 전국에서 벌여왔다. 올해는 5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33개 회원YWCA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연합회는 5월 23일(화)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공동으로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YWCA는 5월 25일(목)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교육을 진행했다.



5월 23일(화) 국회에서 열린 2017 '동일임금의 날' 정책토론회

독일 '공정임금법',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 영국 '대기업 성별임금격차 보고 의무화 법률', 오스트리아 '평등대우법', 스위스와 호주의 '성평등법'.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정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이다. 세계 최초로 동일임금 인증제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 아이슬란드는 2022년까지 성별임금격차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아이슬란드의 동일임금인증제는 직원 수 25명 이상인 모든 고용주는 남녀간 임금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성평등 실현

지금 세계의 화두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성평

등 실현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15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위 일본, 에스토니아와도 10% 넘게 차이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형태 공시제와 공공기관 경영공시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남녀간 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3% 수준까지 완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성평등 정부'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아직 낮다. 당사자인 여성들조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엔 OECD 통계를 제외하고

동일임금 관련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없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은 "남녀임금격차를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남녀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접근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제정추구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동일임금의 날이 제정되면 여성이 받는 임금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와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강조한다. YWCA도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해 15개 회원YWCA, 올해는 33개 회원YWCA가 참여했다.

벨기에 등 유럽국가에서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시작된 동일임금의 날 제정운동은 각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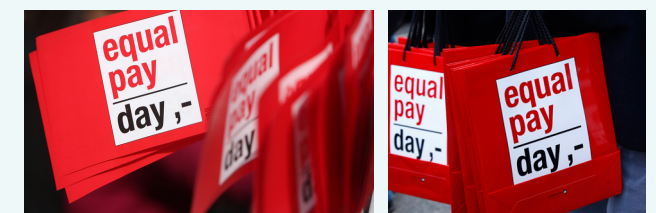
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는데 2013년 1월 25일 국회의장 직속으로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그해 3월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 등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 근로, 초단시간 근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여성 고용 노동정책은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다. 'Equal pay'(동일임금) 이전에 'Fair pay'(공정임금)이 먼저 필요한 이유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공정한 임금을 목표로 한다. 제20대 국회와 새 정부는 더 이상 선거용 공약이 되지 않도록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나설 때다. 

## '동일임금의 날' 디자인 이야기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전단지를 만든 이유는 '숫자'에 있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 36.7%는 2014년 OECD 통계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연간 근로일 기준 95일을 무임금으로 더 일하는 것을 뜻한다. 디자인은 누가 했을까? BPW(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소속 독일 여성이 디자인했다. 비영리 시민단체 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단지와 가방이 '빨간색'인 이유는 무엇일까? 실선은 수학의 '분수'를 상징한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비교 계산했을 때 여성의 임금은 적자(-)라는 뜻이다. 빨간색은 적자를 나타낸다. 빨간 가방은 여성들의 가방에서 사라진 돈 즉, 임금격차로 인한 빈 가방을 표현한다.



# 2017 '동일임금의 날' YWCA 캠페인



남양주YWCA 5.27(토)  
호평체육문화센터



남원YWCA 5.25(목)  
남원시청 앞



논산YWCA 5.24(수)  
논산YWCA



대전YWCA 5.26(금)  
용문네거리~롯데백화점



사천YWCA 5.24(수)  
새시장 일대



서울YWCA 5.25(목)  
명동 우리은행 앞



성남YWCA 5.24(수)  
성남YWCA회관 일대



수원YWCA 5.25(목)  
화서역(1호선)



순천YWCA 5.20(토)  
장미의 거리



안양YWCA 5.25(목)  
범계역 로데오거리



여수YWCA 5.26(금)  
학동사거리



울산YWCA 5.23(화)  
울산대공원 SK광장



원주YWCA 5.26(금)  
원일로 사거리



의정부YWCA 5.24(수)  
금호동 흥플러스 앞



익산YWCA 5.26(금)  
영등동 하나은행 앞



창원YWCA 5.25(목)  
성남동 분수광장



청주YWCA 5.26(금)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



춘천YWCA 5.23(화)  
지하상가



포항YWCA 5.29(월)  
경남은행~5호광장 사거리



하남YWCA 5.27(토)  
하남시청 환경나눔장터

# 적극적, 전문적, 구체적, 지속적인 실천을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탈핵생명위원회 위원장

YWCA는 제19대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탈핵'을 공약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탈핵 핵심 의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긍정적인 정책을 제시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동안 생명회복운동에 힘써온 YWCA는 탈핵운동의 첫 결실로 2015년 노후한 핵발전소 고리1호기 폐쇄를 이뤄냈다. 40년간 꺼지지 않는 불이었던 고리1호기는 6월 19일 영면에 들어갔다. 그 불을 하나 끄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지, 과연 끌 수 있는 불인지, 정말로 경제적이었는지 처음으로 확인하게 된다. 탈핵을 공약하고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한 지금 YWCA 탈핵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대선 이후에도 YWCA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한 월성1호기 완전폐쇄는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핵발전소 당장폐쇄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고 있는 '불의 날 캠페인'을 계속하되, 시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탈핵 테이블톡' 같은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와 2014년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을 겪었지만 국민을 지켜줄 방재대책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방사능 방재대책 관련기관조차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전면수립을 주장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방재전담기구 설립, 관련법

제정도 준비해야 한다.

에너지전환과 자립에 집중해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복원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에게 다가가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비롯해 절약방법,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자연 재생에너지, 내가 만드는 에너지 등의 연구와 실천, 나아가 지역에너지 조례제정을 기획할 것이다.

식품방사능 안전문제도 시급하다. 방사능 식자재 수입은 국민, 특히 급식아동 건강과 직결된다.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시민들이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아동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할 책임을 묻는 일에 나서야 한다.

탈핵교육 확대와 심화다. 탈핵씨앗강사 양성을 더욱 확대해 탈핵운동 저변화에 힘써야 할 때다. 연합회 실행위원, 회원YWCA 이사와 위원들은 모두 탈핵씨앗 강사가 되어 탈핵 전도사로서 사명을 띠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 YWCA가 계속 주도해야 하는 탈핵생명운동의 영역은 끝이 없다.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탈핵과 에너지정의에 긍정적인 대통령을 세운 하남에게 감사드리며, 국민 안전을 위해 탈핵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백지화 공약' 빨리 이행하라



YWCA가 6월 7일(수) 부산시 기장읍 고리원자력홍보관 앞에서 탈핵문화제제를 열고 있다.

YWCA 탈핵운동단이 '잘가라! 신고리 5·6호기'를 외치며 울동하고 있다.

“우리는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과 공포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자 합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6월 7일(수), 부산시 기장읍 고리원자력 홍보관 앞에서 탈핵문화제제를 열고 신규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탈핵문화제에는 부산, 울산, 경주 등 인근지역뿐 아니라 전국 48개 회원YWCA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혜 회장은 “지진위험 지역에 지어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라며 탈핵이 우리 사회의 대세임을 강조했다. 원영희 연합회 탈핵생명위원장, 유영은 대구YWCA 회장, 김성아 수원

YWCA 회장, 강선임 순천YWCA 회장은 성명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새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이자 신고리5·6호기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가 연대사를 하고, 참가자 모두가 탈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신고리 5·6호기 인형과 핵폐기물 드럼통으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문화제를 마쳤다.

부산YWCA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대구YWCA 탈핵운동단, 개똥이어린이예술단 우창수·김은희씨가 공연을 펼쳤다.

# 시민사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운동 나서다 2017인 선언, 릴레이 1인시위, 서명결과 전달 등



탈핵약속 실천 촉구 2017인 기자회견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

YWCA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운동에 본격 나섰다.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탈핵약속 실천촉구 2017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탈핵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까지 행진했다.

한국YWCA연합회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 부산운동본부는 6월 13일(화) 오전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선규 탈핵대사와 부산운동본부 대표단 4명은 연합회 이명혜 회장, 유성희 사무총장 등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요구 의견서를 전달

했다. 연합회 실무활동가들은 탈핵공약 실천촉구를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같은 날 오후 이명혜 회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YWCA 10만 회원의 뜻을 전하며 고리1호기가 영구 폐쇄되는 6월 18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시작해 전국에서 33만 8,147명이 참여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 결과가 6월 15일(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잘가라핵발전소100만서명운동본부는 청와대 효자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원영희 YWCA 부회장과 조현철 신부 등이 청와대에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 우리는 '헬조선'의 '헬페미니스트'다

취재 김보영·김현수·문윤희·이혜린(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회원)  
사진 이기원(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YWCA 청년들이 안현진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됐다.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혐오'에 맞선 여성들의 행동이 시작됐고,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등장했다. YWCA 청년들이 6월 9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범페미니스트' 안현진 활동가를 만났다.

## 어떻게 페미니즘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든 친구들이 많다. 나도 그렇다. 그 사건 후 여성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밤거리를 무서워해야 하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하는데 왜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음날부터 2주간 매일 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자유발언대를 진행했다. 그런데 여성혐오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분노한 여성들이 모였다. 500명 가량 되었다. 폭력을 당한 경험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싸웠다. 그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을 보면서 계속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연히 뛰어 들었다.”

## 새로운 여성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는 강남역10번출구를 비롯해 불꽃페미

액션, 페미당당 등 여러 단체들이 생겼다. 올해 3월엔 연대체인 '범페미니스트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지금은 강남역10번출구, 불꽃페미액션, 대구나쁜페미니스트, 부산페미니스트네트워크가 속해 있다. 범페미니스트네트워크가 주관해 5월 17일 저녁 강남역 인근에서 1주기 추모제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를 열었다.”

## 특히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2030세대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성장기를 거쳤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경쟁은 공정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배웠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거쳐 좋은 성적과 성과를 내도 여성들이 받는 대우는 달랐다. 학교와 직장은 임금차별부터 성희롱까지 차별이 난무했다. 끊임없는 여성혐오 속에 인권을 침해당하고 생존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성폭력법이



범페미니스트네트워크가 주관한 '강남역 사건' 1주기 추모제

개정되었으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직장 성희롱은 여전했다. 강남역 사건은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생존위협을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나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이 젊은 여성들을 움직인 것이다.”

## 청년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영페미니즘'의 시작을 강남역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된장녀, 김치녀 등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오프라인 대자보부터 온라인 메갈리아 미러링(여성혐오에 대한 혐오)까지 다양했다. 사실 영영페미니즘이란 표현을 반기지 않는 활동가들이 많다. 그럼 다음세대는 '영영영페미니즘'이라 불러야 하는가(웃음). 메갈리아 한계를 뛰어넘자는 의미로 '포스트메갈', 헬조선의 페미니즘이니 '헬페미'로 하자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 기존 페미니즘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교차성의 문제다. 지금 페미니즘은 여성 내 다양한 층위, 이를테면 성소수자까지 고려한다. 우리 사회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가난한 여성, 부유한 여성이 존재한다. 여성을 넘어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영영페미니즘의 이슈다. 성소수자, 장

애, 빈곤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교차페미', '쓰까(섞어)의 사투리)페미'로 불리기도 한다.”

## '강남역 사건' 1년 후,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변화의 시작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다. 은폐되던 공동체 성폭력이 해시태그를 타고 공론화되었다. 대선기간 심상정 후보가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문제를 공론화했다. 메갈리아 티셔츠의 폭발적 판매는 페미니즘에 대한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낙태시술 처벌을 강화하려던 시행령이 여성들의 '검은 시위'로 폐기됐다. 억압된 것들이 드러나고 함께 목소리를 냄으로써 곳곳에서 작은 승리가 나타나고 있다.”

##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 과제는 무엇인가.

“너무 많아서 답하기 힘들다(웃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지금은 혐오발언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차별금지법은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한다. 여성신체에 대한 규제와 억압을 국가가 좌우하는 낙태죄도 폐지해야 한다. 여성 몸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 나아가 월경에 대한 인식, 출산·임신·육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동일민낫(여성들이 꾸미기를 강요받는 것)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청년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즐겨보던 TV프로그램,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 심지어 가족까지 불편해진다. 남성들도 자신이 잠재적 가해자나 동조자로 여겨지는 게 혼란스럽고 억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누구든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 있다. 피해자, 소수자인 여성도 가해자, 다수의 입장에 설 수 있다. 이때 사회구조의 문제란 것을 직시하고, 함께 바뀌어나가야 한다. 페미니즘은 인권이다. 모르면 배워야 한다.”

# '새 세대' 청소년들 북한 교육 달라질까

이복희

서울YWCA 제2회계이사

YWCA는 창립 95주년을 기념해 '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세 번째 평화포럼이 서울YWCA 주관으로 6월 8일(목)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 낮은 대학진학률, 남한과 대조적

우리나라는 특유의 교육열로 5천만 국민이 교육전문가라 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과열문제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북한 교육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교육과 비교해 미래 한반도 청소년교육의 나아갈 바를 고민해보는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포럼이 열렸다. '북한의 교육, 아동과 미래'를 주제로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의했다. 북한의 아동교육 실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통일 한반도 교육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2012년 9월 학제개정 이후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낮은반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초급중학교 교과목으로는 김일성 혁명활동, 김정일 혁명활동, 김정숙 혁명활동, 김정은 혁명활동, 사회주의 도덕, 조선력사, 조선지리, 국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정보기술, 기초기술, 체육, 음악무용, 미술이 있다. 특징은 대학생으로 올라가면 급격히 그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중학교 졸업자는 대부분 입대하거나 직장에 배치되고, 대학진학률은 약 15%로 추정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남한과는 대조적이다.


'고난의 행군기'라 불리는 1990년대 중·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학교 지원이

급격히 줄어 출석률 저하, 운영의 파행을 가져왔다.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가 늘었으며 공교육에서 사부담이 증가하고, 2000년 이후엔 더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까지 나타났다.

## '새 세대' 북한 청소년의 등장

우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고난의 행군기에 유년기를 보냈던 북한의 '새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궁핍, 빈곤, 존재의 불안을 겪었으며 국가와 가정에서 절대적, 가부장적 권위 하락과 규율해체를 경험했다. 국가 이데올로기 내면화와는 거리가 먼 세대로 기존 국가규율 대신 또래관계, 외부문화, 돈 등 새로운 규율권력을 접하게 된다. 물

질과 부, 권력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며 소비와 시장 관계에 익숙한 '시장세대'로, 약화된 혁명식과 지배자에 대한 충성심이 공존한다. 외부문화 유입으로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자아실현으로서 탈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품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다.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는 기준을 넘어 경제경험을 통한 정체성의 재구성을 할 시기에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 영·유아와 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학교환경 개선, 남북 청소년교류도 절실하다. 우리가 북한 교육실태를 이해하고 통일된 한반도 청소년들의 교육을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나갈 때 함께 살기 위한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2차포럼


## 북한 사회, 가정과 연애문화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두 번째 평화포럼은 5월 15일(월) 광주YWCA 주관으로 광주YWCA 회관에서 열렸다. 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의 강의 내용을 요약했다.

북한 사회라는 공식적인 담론 안에서 사랑과 가족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북한에서의 사랑은 혁명적인 감정과 일치될 때만이 참다운 사랑으로 고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목표를 위한 동지적 협력관계를 지향한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가족을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회의 세포'로 존중하며 참된 모성애를 강조한다. '참된 모성애'란 자녀를 공산주의자, 혁명가, 군인으로 키우는 것을 뜻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극심한 영양결핍과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북한은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에게

'모성영웅'이라는 칭호부여와 양육혜택을 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스스로의 능력과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가적인 통제를 받고는 있지만, 여성들이 외부문화를 접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애와 결혼을 동일시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가 하면, 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을 당당하게 생각하며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다양하고 주체적인 변화는 국가 기획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활동영역과 공간, 가치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3차 평화포럼이 '북한의 교육, 아동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남북한 학생수 비교(통일연구원 제공)

# 대한민국은 '가사노동자 특별법'에 응답하라

## 편집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분야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추경안을 제출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가사노동자 권리 확보에 노력해온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6월 15일(목)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협약 기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6월 15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189)'을 채택한 날이다.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와 국제노총, 국제식품연맹은 다음해 ILO 총회에서 그 다음날인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핵심 '가사노동자'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다양한 돌봄노동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1호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도 보육, 노인돌봄, 치매관리, 아동 안전 등 공공부문을 비롯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들로 여성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제6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의 현실이 알려졌고, 가사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201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이 발의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가사노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사노동자 노동법 적용과 ILO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정부는 가사노동 특별법안 연내발의를 발표했으나 노동개혁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일방 중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가사노동자 70여명 '광화문 1번가' 제안서 전달

6월 15일 기자회견엔 70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참석해 돌봄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에게 양

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YWCA 박희규 가사관리사, 창원손길협동조합 김지현 가정보육사, 성남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 배화수 산모관리사가 직접 발언대에 올랐다.

가사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국민제안 접수처로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1966년 한국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를 도입한 한국YWCA는 1975년 건강돌보미, 1988년 산모돌보미와 아기돌보미에 이르기까지 돌봄서비스 직종개발과 훈련을 주도했다. 돌봄노동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사지원분야 NCS(국가직무표준) 개발과 체계적 교육, 사회인식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협동조합 설립, 가사노동자 노동권보장 입법추진 등 돌봄노동 사회화에 주력해왔다.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안' 발의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가사노동자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가사노동자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법률이 정한 근로조건 등을 바탕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데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 근로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공신력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으로 가사서비스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10년 첫 관련 법안이 제안되었다가 무산된 지 7년 만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행복하돌봄협동조합 등 관계자들과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 공인노무사 표대중 돌봄과살림위원회

# 여자로 태어났다고 단념하는 게 옳은가 한국 여성 최초로 한문기행문 쓴 김금원

## 남궁해경

고양YWCA 중점운동국장

고양YWCA는 여성역사와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3년 전부터 해마다 성인지교육 과정에 여성인권운동사, 여성역사기행을 포함해 여성인물의 삶을 복원해왔다. 현재 삶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모르고 있던 여성역사와 접촉해보는 과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다른 시선, 다른 목소리-대립에서 공존으로'라는 제목으로 성인지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금원의 여행문 호동서략기

우리 역사에서 여성이 '주체'로 등장하는 사건과 기록을 접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배운 역사는 누구의 시선으로 기록되었을까. 이 울곡의 어머니로서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기억되는 신사임당은 있을지언정 속중부터 당대 최고 학자들까지 칭송해 마지않던 예술가로서, 즉 한 사람의 주체로서 신사임당을 접해본 기억은 없다.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역사를 기억할지언정 그의 부인 정순왕후가 단종의 죽음 후 82세까지 어떻게 주체적으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는 이들도 많지 않다. 여성들의 역사는 지워지고 가려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 각색되어 하나의 표본과 이미지로 자리매김되었다. 역사는 그대로 두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여성인물의 프리즘을 통해 역사를 다시 보는 것은 또 다른 진실과 만나는 과정이다. 미국 역사학자 거다 러너는 "여성의 역사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성의 과

거 경험에 대한 짧은 접촉이라도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 14살에 남장하고 홀로 금강산 오르다

5월 25일, 우리는 특별한 한 여성을 만났다. 스스로 자신의 호를 '금원당'이라 짓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기억되고 남기를 열망했던 19세기 여행가 김금원(1817~1853로 추정). 그는 1830년(순조 30년) 14살에 남장을 하고 단양팔경, 금강산, 관동팔경, 설악산, 한양을 여행했다. 여행을 마친 후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기행문 <호동서략기>를 쓴다. 금원당은 왜 여행을 하려고 했을까.<sup>1)</sup>

"눈으로 산하의 큼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사물의 중다함을 겪지 못한다면 통변하여 그 이치에 도달할 수 없어 협소해지고 식견이 통달하지 못한다. 남자는 집 밖의 넓은 세상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중략) 여자는 세상과 절연된 깊숙한 규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탓으로 그 총명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한 채 자취없이 사라지고 마니 참으로 슬프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



금원의 기행을 따라 제천의림지로 여성역사기행을 떠난 고양YWCA 회원들



금원이 떠나기를 주저했던 단양팔경 사인암

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에 이름을 날릴 것이라 단념을 하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역할에 따른 불평등을 1800년대에 인식하고,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여행을 통해 식견을 넓히려 했던 한 여성의 열망이 보이는가? 이 열망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여 허락을 받음으로 성취된다. 김금원은 그 마음을 "마치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새장을 나와 끝없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기분이고 좋은 말이 굴레와 안장을 벗은 채 천리를 달리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 History에 묻힌 Herstory

고양YWCA도 그의 기행을 따라 김금원이 첫 여행지로 선택했던 제천 의림지와 단양팔경으로 향했다. 그는 제천 의림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풍경뿐 아니라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림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어부에게 물고기를 사서 회를 쳐서 먹고, 지역특산물을 맛보는 등 대담하게 여행의 풍경으로 뛰어든다.

단양팔경 중 풍경이 빼어난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을 거쳐 사인암에 이르러 "경석처럼 하늘 한가운데로 치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하며, 그 앞의 작은 시냇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새하얀 백사장은 흰 천을 깔아 놓

은 듯하여 한 점의 티끌도 없다. 내 나이 16세도 되지 못하여 뒷날 다시 찾을 기약을 할 수 없기에 서글픔을 머금은 채로 떠나야만 했고 또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거기로 무한한 승경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사인암을 실물로 마주 한다면, 금원당이 이 곳을 왜 떠나기를 주저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여행을 마치고 고향 원주로 돌아가 기생이 되며, 이후 한양으로 와서 여성시단을 이끈다.

우리 역사기행도 금원당이 배를 타고 금강산으로 향했던 장희나루에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무리했다. "강산의 크고 작음과 일월의 영원함에 접근할 수 있으니 무슨 까닭에 굳이 천하의 강산과 일월을 논하겠는가? 그러나 지나간 일도 스쳐 지나가면 눈 깜짝할 사이의 한바탕 꿈이니 진실로 글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지금의 금원을 알겠는가?"라며 영원한 일월 속에 여성의 역사를 글로 남기고 자신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길 바랐던 한 여성의 삶이 마음을 울린다.

역사 속 숨겨져 있는 여성들을 재조명하고,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 복원해 여성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들이 공유되길 소망한다. 시대의 편견과 장벽에 맞서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YWCA 여성들의 역사를 후대 어느 여성이 접촉했을 때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금원당의 글은 <강원여성시문집>(강원도), <조선후기 원주출신 여류시인-여행가 김금원>(원주시)을 바탕으로 했다.

# 청년성, 자발성은 스스로를 만드는 공부

이기원·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YWCA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원로에게 듣는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로 창립 95주년을 맞은 광주YWCA에서 간사부터 시작해 회장을 거쳐 명예이사로 지금까지 65년을 활동하고 있는 조규혜 명예이사를 만났다.



조규혜 광주YWCA 명예이사 약력

- 1952~66 광주YWCA 간사
- 1967~88 광주YWCA 이사, 위원장, 부회장, 회장
- 1994~97 광주YWCA 복지법인위원회 대표 이사장
- 1988~96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공천위원
- 1991~93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 1993~94 한국장로교 여성협의회 회장
- 2012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60년 봉사상
- 2017 현재 광주YWCA 명예이사



1980년 5월 24일 YWCA 등 광주지역 기독교단체가 주관한 연합예배에 구름처럼 인파가 몰렸다.

## 김필레, 조아라와의 만남이 YWCA로 이어졌지요?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다닐 때 교장인 김필레 선생의 신앙심과 애국심을 존경하고 흠모했어요. 선생이 서울로 가신다고 할 때 유임운동한다고 문구 만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아쉬웠지요. 고모 조아라 선생도 광주수피아여자학교에서 스승 김필레 선생을 만나 YWCA를 알게 되고, 나를 광주YWCA로 인도했어요.”

## 성빈여사, 호남여숙 등 소외계층교육에 힘썼는데요.

“여성교육과 지도자 양성이란 YWCA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초등학교도 못나온 사람들이 태반이던 시절, 우리 사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도자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했어요. 처음 세울 때 조아라 선생의 열정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 일본과의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후쿠오카YWCA에서 처음 자매결연 제안이 왔을 때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반대가 있었는데 ‘주님 안에서’ 결의했어요. 일본 YWCA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하듯 일본 사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그분들은 투옥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기도했습니다.”

## 회관재건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근거지가 된 대의동회관은 계엄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었어요. 부족한 형편에서 새 회관 건축을 시작해 조아라 회장님과 내가 여기저기서 많이 빌려다 갚아도 3억원의 빚이 남았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조아라 회장님은 밤늦게 집에 들어가곤

했지요. 그러던 중 서울에서 아세아교회협의회가 열렸고, 각국 대표들이 광주YWCA 회관을 보러왔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서 3억 2천만원을 모아 보내줬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 광주YWCA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5.18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는 민주화운동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대학생과 시민군에게 회관을 개방했어요. 마음대로 와서 잠도 자고, 인체도 하라고. 조아라 회장님은 민주화에 항상 앞장서는 분이요, YWCA회관으로 뜻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27일 계엄군이 쳐들어왔던 날은 전쟁터였어요. 광주YWCA 신협 직원 박용준씨가 숙직하다 총을 맞고 즉사했고, 우리 집이 도청 가까이 있었는데 집밖 화장실까지 총알이 날아와 박혔으니까.”

##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광주 사람들은 동료, 친구들이 쫓기고, 투옥되고, 죽는 상황을 보며 고통에서 살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 심경을 잘 몰라요. 연합회 사람들도 몰라요.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광주YWCA는 항상 외로웠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선에 나와 봐라, 우리처럼 안하는가?’ 그만큼 민주화운동은 광주 사람들의 나라사랑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광주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게 정말 기쁩니다.”

## 구속자지원, 석방운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셨죠?

“어느 날 계엄군이 온다는 소식에 다들 천주교회회관으로 옮겨갔어요. 근처 살던 나는 슬리퍼를 신은 채 나와 있어서 신발을 갈아 신으러 갔다 온 사이 수습대책위원회가 모두 잡혀갔어요. 조아라 회장님, 이애신 총무님도 잡혀갔고요. 그때부터 구속된 분들 면회를 다녔습니다. 식사를 넣어주고 뒷바라지를 했어요. 조각된 죄명을 막기 위해 국선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지요. 광주YWCA는



조규혜 명예이사가 2012년 8월 18일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에서 60년 봉사상을 받는 모습

목요일마다 구속자석방 기도회를 열고 시민논단을 운영했어요. 부상자 위문으로 찾아온 이들에게는 광주의 정확한 진상을 알렸고요. 잡혀갈까봐 항상 속옷과 우선 쓸 것을 갖고 다녔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 65년간 활동하며 YWCA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YWCA는 참동료와 친구를 만나는 대화와 배움의 장입니다. 내 소원이 동료의 마음에도 있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합니다. ‘진실이면 통한다’가 좌우명인데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도 진실이 통로입니다. 진정성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YWCA는 나를 참 풍요롭게 만들어주지요.”

## YWCA 초기정신인 청년성, 자발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청년성은 ‘늙지 않는 것’입니다. 늙는 것은 쉬며 편하게 지내는 것이죠. 늘 독서하고 신문 읽는 조아라 회장님을 보면서 늙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목표가 있고, 자기 할 일을 가진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자발성은 ‘성숙하면 자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생활, 크리스천의 삶을 실천하면 인간은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청년성과 자발성으로 스스로를 만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 영화 '오두막', 눈부신 기적이 시작되는 곳

**신 선**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위원

'오두막(The Shack)'은 1천만부 넘게 팔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세계 독자 2천만명의 마음을 위로한, 캐나다 작가 윌리엄 폴 영의 소설을 영국 출신 스튜어트 하젤딘 감독이 각색한 작품으로 상영시간 132분의 기독교 영화다. 지난 4월 하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옛 서울기독교영화제) 폐막작으로 올랐던 이 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놓쳐 책을 읽었다. 책의 장면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영화 '오두막' (The Shack, 2016)**  
드라마, 판타지 / 132분 / 미국  
감독 스튜어트 하젤딘



**책 '오두막'**  
윌리엄 폴 영 지음 / 세계사 / 13,800 원

## 단란한 가정이 겪는 거대한 슬픔

영화는 맥이 아내 낸을 집에 남겨두고 아들 조시, 두 딸 케이트와 미시를 데리고 여름휴가차 호숫가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곳에서 막내딸 미시가 유괴 살해되는 슬픔을 겪으면서 삶을 추스르지 못하던 어느 날, 맥은 이상한 편지를 우편함에서 발견한다.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있을 테니 만나고 싶으면 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파'가 딸을 잃은 바로 그 오두막으로 맥을 초대하는 편지였다. 맥은 친구의 만류에도 눈길을 헤치고 오두막으로 달려간다. 온통 눈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 낡은 오두막에 들어선 맥은 딸이 희생된 핏자국을 보고 분노와 고통에 절규하다가 혼절한다. 그 순간 맥에게 마법과도 같은 신비한 상황이 펼쳐진다.

푸르고 생기 넘치는 화사한 꽃들과 붉은 넝쿨장미가 늘어진 아름다운 통나무집 오두막에서 '파파, 예수, 사라유'라는 신비로운 세 사람,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난다. 절망에 빠져 있던 남자 맥은 이들과 함께 오두막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경험을 한다. 혼란스럽기만 하던 맥은 차츰 마음이 열리고, 삼위인 세분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에서 그의 '거대한 슬픔'은 새로운 삶으로 변하면서 치유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오두막은 경이로운 기적의 장소였다.

언제나 맥과 함께했고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세분과의 신비했던 만남을 간직하며 가족에게 돌아오는 길에 맥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깨어나면서 현실로 돌아온다. 맥은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사랑과 용서, 화해의 경험으로 새 삶을 찾는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한 가정에서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 '삼위일체' 신의 존재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파파'는 늘 식탁을 차리며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걸어주는 빨간 치마를 입은 친근한 흑인 아주머니다. 그러다가 딸 미시의 시신을 찾는 산길로 향할 때는 힘을 쓸 수 있는 건장한 모습의 나이든 아버지 '파파'로 나온다. 중동사람으로 작업복을 입고 목수 일을 하는 '예수'는 맥의 손을 잡고 호수 위를 같이 걸어주고, 영롱한 밤하늘 별들에 영적 생명으로 빠져드는 아름다움을 나누는 편안하고 다정한 친구다.

아시아계 여성의 모습으로 신비로운 바람결에 머리 카락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성령님인 '사라유'는 언제나 맥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말을 걸어주며 무한한 소통의 능력과 생각을 이어준다. 맥이 흘리는 눈물을 받아 작은 병에 담아 두었다가 미시의 무덤에 그 눈물을 뿌려 아름다운 갖가지 꽃을 피우고 울창한 생명나무로 풍성한 대자연의 숲을 일구어내는 역동적인 위로자다. 동굴에서 만난 라틴 아메리카계 여인으로 등장하는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멀로마 공주의 전설처럼 자신도 그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암시를 보여주던 딸 미시가 행복하게 뛰어노는 폭포 뒤 아름다운 곳,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색깔로 표현되는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과거 포악했던 아버지와의 화해, 미시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미시가 이미 용서했다는 범인을 용서하는 눈물의 고백. 이 모든 장면은 맥에게 마법과 같은 여정이었다. “바로 사랑이 그 일을 하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무한히 빠져들었다.

맥이 예수의 손을 잡고 호수를 건너 오두막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종교나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왜곡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신앙의 자세는 미숙하고 자신을 추스르는 힘은 부족한데 가식과 도그마에 빠진 것은 아니었던가. 관념의 틀에 갇혀 움작달작 못하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맥은 신비한 힘을 가진 파파, 예수, 사라유를 만나면서 눈부신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

는 몸부림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어떤 의미인가. 파파는, 예수는, 사라유는 맥과 함께 지내면서 맥이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 치유의 변화를 경험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와줄 것을 보여준다.

## 하나님도 햇볕을 즐길 시간이 있나요?

맥이 의아한 듯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파파에게 이전 파파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듯 공연히 트집을 잡아본다. “하나님도 햇볕을 즐길 시간이 있나요?” 파파는 “나는 지금도 쉬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한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당신들의 원통함을 내가 아오!”라며 보듬을 때 그들의 고통과 분노가 그 오두막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랑이 지배한다고 믿는 실수투성이 우리들’에게 바친다는 저자의 말처럼 오두막에서는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뛰어넘는, 순전한 신앙의 자세로 따뜻하고 깊은 사랑의 영성만이 다가온다. 나 홀로의 오두막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구원의 순례로 끌어들이는 감동적인 ‘오두막’ 영화와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월례아침기도회



6월 1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월례아침기도회에서 안선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고통의 기억'(사사기 19장 22절~20장 5절)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성폭력으로 짓밟힌 여성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전하고, YWCA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7 서부지역 YWCA 역량강화교육



서부지역위원회(위원장 강선임 순천YWCA 회장) 주관으로 5월 23일(화) 광주YWCA 대강당에서 '2017 서부지역 YWCA 역량강화교육'이 열렸다. 평화통일과 성평등 운동에 더욱 앞장서는 서부지역이 되기를 다짐하며 10개 회원YWCA에서 임원, 이사, 위원,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평화통일 정책

교육을,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가 성평등 정책교육을 강의했다.

YWCA 직업훈련 실무자 워크숍



6월 14일(수)부터 15일(목)까지 회원YWCA 직업훈련담당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직업훈련담당 실무자 워크숍이 열렸다. 김은경 성평등위원장이 '젠더 관점에서 본 돌봄노동의 가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이은영 돌봄과살림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과 여성직업훈련기관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2017년 변화하는 돌봄노동시장 현황을 공유했다.

YWCA 어린이집 신입교사 연수



YWCA 버들캠핑장에서 6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전국 YWCA 어린이집 신입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성경으로 유아생태교육을 이해하고, 4가지 유형의 성격유형 검사(DISC)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역량을 키웠다. YWCA 어

린이집 특화교육인 '숲프로그램'도 체험했다.

청년기자단 2기 수료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청년기자단 2기가 6개월간 활동을 마쳤다. 10명의 청년기자단은 6월 23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마지막 정기모임을 열고, 1인미디어로 활약하고 있는 김정환(미디어몽구)씨의 '현장 취재 이야기' 강의를 들었다. 앞서 열린 수료식에서는 이명혜 연합회 회장과 백혜진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수료증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청년의 눈으로 YWCA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기자단은 7월부터 3기가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2차 대학·청년Y 운영위원회



전국 16개 회원YWCA 대학·청년Y 운영위원들은 6월 24일(토) 안산 YWCA에서 제2차 대학·청년Y 운

영위원회회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회원Y별, 4부 지역별 활동 공유와 전국회원대회 역할분담을 협의했다. 이보다 앞서 대학·청년Y 중앙임원회는 5월 27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전국회원대회 기획, 대학·청년Y 홍보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이 중앙임원들에게 '회의 진행방법'을 강의했다.

아이돌봄분야 NCS 개발사업 착수보고회



아이돌봄분야 NCS(국가직무표준능력) 개발사업기관으로 선정된 한

국YWCA연합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0일(화) 연합회에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아이돌봄분야 NCS 개발사업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진과 개발위원 12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5차례 개발워크숍이 진행된다. 아이돌봄분야 관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YWCA 장기요양시설장 연구모임



6월 13일(화) 수원YWCA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YWCA 장기요양기관장 연구모임이 진행됐다. 10개의 YWCA 장기요양기관장이 참석해 급변하는 장기요양보험 정책에 관한 대응을 마련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원YWCA 소규모요양시설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전문 장기요양시설 운영방법을 논의했다.

동정

이명혜 연합회 회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 (2017. 6 ~ 2019. 6)

박영순 평화통일위원회 위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 취임 (2017. 3 ~ 2019. 3)

인사

김미애 간사 (2017. 6. 1)

회원Y협력지원위원회 복직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5. 1~5.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5. 1~5.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복례,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정미, 백혜진,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인숙, 심선미,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정분,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천진, 이행자,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임강숙,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운우, 전배자,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채정희, 최수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1,943,000
회원YWCA	길수인, 신다은, 이진용, 진하영, 최혜실	69,72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성광교회 에스더 목장, 장안제일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성교회	350,000
기관, 단체	NH농협은행(명동지점), 르빵(명동성당점), 레오니다스, 에세레 젤라또(명동점), 천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49,050
<b>합계</b>		<b>2,411,770</b>

##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이사·위원 연구모임



5월 15일(월) 댄싱플라워 화원에서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강의로 YWCA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민했다. 강의 후 위원회별로 찰흙과 꽃으로 작품을 만들고 공동체 협업, 창의성 존중,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 어르신 한글교실 야유회



어르신 한글교실반이 5월 18일(목) 남양주시 수동 몽골 문화촌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친목을 도모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부천시 정책분석교육

부천YWCA는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와 합



께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4-5월 까지 총 7회에 걸쳐 여성정책 분석교육을 진행했다. 여성정책 형성과정부터 제도, 젠더, 예산 등 다소 어려운 주제인데도 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질문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남YWCA

김자혜 간사

### 돌봄과살림협동조합 두레여행



돌보미와 함께하는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2017년 두레여행이 5월 13일(토) 화답숲에서 진행되었다. 60여명의 살림돌보미, 산모돌보미, 아기돌보미가 참여해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고충을 나누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 2017 대학·청년Y, Y-틴 인준식



5월 13일(토) 수원영생고등학교에서 대학·청년Y와 10

개 Y-틴 동아리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대학·청년Y,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최선화 대학·청년Y회장이 사회를 맡고, 김성아 Y-틴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인준식은 YWCA 중점활동 강의를 통해 청소년청년 회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 환경건강매니저 양성교육 수료



환경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을 4월 21일(금)부터 5월 26일(금)까지 안산YWCA에서 진행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생활습관, 방사능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디버튼 줄이는 식단 만들기 등 총 10강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수료생 25명은 심화학습을 거쳐 친환경적 삶을 전파하는 환경건강매니저로 활동할 예정이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 행복밥상! 힐링푸드



건강하고 안전한 식문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행

복한 밥상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문식생활 교육 '안양 YWCA 행복밥상! 힐링푸드'를 5월 11일(목) 진행했다. 11월 말까지 20회에 걸쳐 올바르게 안전한 식재료와 식습관뿐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룬다.

의정부YWCA

정진아 부장

### Y-틴 인준식 'Y-틴 답다'



의정부YWCA는 5월13일(토) 북부경기문화창조 허브에서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발곡고등학교(꼬꼬마), 상우고등학교(공감대), 송양고등학교(혜음), 녹양중학교(솔방울) 학교 Y-틴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포천 다문화국제학교(다래), 센터Y-틴(사각지대) 동아리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Y-틴다운 참여와 성장을 다짐했다. 특히 센터Y-틴 '사각지대'는 5월부터 7월까지 인권교육, 인권 카드뉴스 제작, 인권봉사 기획 등을 통해 Y-틴다운 리더십을 계발하고 지역청소년에게 하계 자원봉사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 거제YWCA 성폭력상담소 개소

거제YWCA는 5월 1일(월) 성폭력이 근절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상담소를 열었다. 2010년 거제시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된 후 지역에서는 통영YWCA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상담소 개소로 원거리



상당 불편을 덜고, 성폭력 예방 홍보와 교육,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거제시 탑곡로 75 2층(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자리를 잡았으며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피해자 임시보호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창립 26주년, 여성인력개발센터 18주년 예배



김해YWCA와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각각 창립 26주년과 18주년을 맞아 5월 22일(월) 김해YWCA 강당에서 기념예배를 진행했다. 1부는 김해시기독교연합회 이근재 화정제일교회 목사가 ‘창조·평화·정의’라는 주제의 설교로 기념예배를 하고, 2부에서는 케익커팅식 등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1991년 창립한 김해YWCA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대구YWCA

정은영 국장

대구지역 여전도회 임원 초청

대구YWCA는 회원증모운동 기간을 맞아 5월 10일(수) 대구지역 여전도회 임원 70여명을 초청해 오찬회를 열



었다. 한국 사회를 위한 예배에 이어 지역선교 비전을 향한 생명사랑공동체로서 대구YWCA 소개, ‘EM으로 환경살리기’ 특강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지역과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위한 평화의 발걸음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마산YWCA

갈성경 간사

시민환경보전단 초록가족돌보기 개강



마산YWCA가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시민환경보전단 초록가족돌보기’ 프로그램을 5월 13일(토) 개강했다. 12가족 4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EM 흙공, 무화학성분 생활용품, 공기정화 테라리움, 로컬푸드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등을 만들면서 환경과 수질, 공기오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받는다. 6개월간 측정 키트로 수질변화를 체크하고, EM흙공 던지기로 정화 활동을 벌이고 9월 마지막 주에 수질오염 모니터링 결과보고와 평가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YWCA

윤영인 간사

2017 회원모집운동 발대식

부산YWCA는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를 주제로 6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30일(화) 부산시민공원 안용복 방에서 2017 회원모집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개회예배, 위원회별 모듬활동과 발표, 회원모집운동 계획 설명, OX퀴즈 등을 진행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사천YWCA는 5월 25일(목) NH농협 사천시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시사 후원으로 남양중학교, 삼천포제일중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소년기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른 음식문화 선도를 위해 우리쌀로 만든 떡과 유기농 과일, 우유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진주YWCA

송광은 간사

회원증모 대원교육, 발대식



진주YWCA는 5월 23일(화) 회원과 이사, 실무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제2강의실에서 ‘2017년 회원증모 대원교육 및 발대식’을 진행했다. 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이 ‘효과적인 회원모집과 모금’을 주제로 강의했다.

창원YWCA

이아름 간사

둘이 하나되는 행복한 부부 세미나



성평등 운동의 일환으로 5월 20일(토) 창원YWCA 회관에서 ‘둘이 하나 되는 행복한 부부 세미나’를 열었다. 부부 20쌍이 참여해 부부간 비폭력대화, 부부 레크리에이션, 부부 사진촬영 등 부부의 의미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가정폭력 피해여성, 아동 돕기 바자회



포항YWCA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류 바자회를 5월 17일(수)부터 21(일)까지 5일간 포항 롯데백화점에서 열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해 후원업체 벨리시앙과 YWCA 회원들이 참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회원운동 발대식



5월 16(화) 강릉YWCA 회관에서 2017년 회원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고문희 회원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회원증모는 하나님의 일”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별로 회원증모 전략을 짜고 팀별 회원증모 주제를 발표했다.

동해YWCA

전민지 간사

사랑나눔바자회 ‘생명사랑 나눔장터’



5월 25일(목) 동해시 코스모스호텔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민들레 밥상’과 급성 영양장애로 고통 받는 북한어린이 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평화브릿지 95와 함께하는 아침식탁

서울YWCA는 5월 23일(화) 명동 로얄호텔에서 한국 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분야 리더 95인을 초청해 <‘평화브릿지 95’와 함께하는 서울YWCA 아침식탁>을 열었다.



창립 9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조종남 회장은 100년을 향한 서울YWCA 비전으로 ‘평화브릿지 행사’를 소개하고 사회각계를 잇는 평화브릿지로 힘을 더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탈북청년 자립지원 해당화농사 일손 돕기



5월 23일(화) 속초 살롬교회 목사와 속초YWCA 실무자들은 탈북민 자립지원을 위한 일손돕기에 나섰다. 탈북청년 강민 형제와 함께 탈북민 자립 지원을 위한 해당화 밭을 찾아 해당화 꽃잎 수확을 돕고, 탈북민들의 자립활동을 응원했다.

인천YWCA

한혜선 부장

몽골 ‘인천 희망의 숲’ 만들기

인천YWCA는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 10주년을 맞아 몽골 간아이막 바양노르섬에서 5월 24일(수)부터 28(일)까지 몽골 사막화와 황사방지를 위한 조림활동과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세천 회장을 비롯한 시민협의회 대표단과 시민자원봉사자,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2008년 시작된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인천시 민관협력사업으로 전환했으며, 올해까지 몽골 바양노르섬과 다신칠링섬 지역 67헥타르 면적에 10만5천주의 나무를 심었다. 인천YWCA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춘천YWCA는 고용평등주간에 맞춰 5월 23일(화) 춘천지하상가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 남녀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1위인 내용을 담은 전단지 배포하며 여성들의 저임금과 차별임금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하는 소비자교육

광양YWCA는 회원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50명을 대상



으로 5월 26일(금) 광양시새마을금고 교육장에서 건강보험 이해를 돕는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2017년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건강보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 달라진 건강보험보험제도, 건강검진(영유아, 일반, 생애전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5·18민주화운동 기념 오월Y시민포럼



5·18민주화운동 37주기를 맞아 5월 15(월) 제23회 오월Y시민포럼을 광주YWCA 강당에서 열었다. 포럼에 앞서 5.18 당시 광주YWCA 신협 직원으로 계엄군 진압에 맞서 싸우다 숨진 故 박용준 열사를 추모하는 예배를 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환경이 어려운 대학생 4명에게 각 100만원씩의 박용준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국민건강보험 소비자교육

5월 18일(목) 남원YWCA 교육실에서 국민건강보험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하고, 모바일 앱(M건강보험)을 통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비롯한 국민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GMO 바로알기 캠페인



목포YWCA는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20일(토) 목포시 하당 장미의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GMO(유전자 변형식품)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쳤다. GMO 문제점 알리기, 인식조사, 체험마당,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 등 시민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순천YWCA

추효인 간사

키다리학교 청소년 EM비누, 모기퇴치제 만들기

순천YWCA는 5월 27일(토) 키다리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EM비누와 EM모기퇴치제를 직접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다. 일상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방법을 배운 청소년들이 이날 제작한 EM비누와 EM모기퇴치제는 6월 3일(토) 나눔장터에서 판매되었다. 수익금은 소외계층 아동을 돌보는 순천주암생명숲돌봄센터에 기부된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여수YWCA는 5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꿈꾸는 대로 미래를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주관단체로 참여했다. 4개 주제관과 125개 체험부스를 비롯해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공연이 진행되어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꿈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워킹맘, 워킹대디 도란도란 이야기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전북젠더문화축제에서 전주YWCA는 일·가정 양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워킹맘, 워킹대디 도란도란 이야기터’를 운영했다. 2017 전북젠더문화축제는 5월 25일(목)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전주YWCA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보육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은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의 고충을 나누었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제1회 제주청소년 관현악페스티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5월 27일(토) 제주지역 청소년과 도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제주청소년 관현악페스티벌 ‘영화 속 클래식 애 빠지다’가 진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YWCA가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클래식을 쉽게 이해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대상은 서귀포여자중학교 슬가람실내악단이, 우수상은 성지유스오케스트라가, 인기상은 서귀포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가 각각 받았다. 우수지도교사상은 서귀포여자중학교 슬가람실내악단 김지은 교사가 받았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회원증모 거리캠페인

논산YWCA 홍보와 회원확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5월



25일(목) 진행했다. 김영란 회장을 비롯해 18명의 회원들은 논산YWCA를 출발해 백제병원 사거리까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논산YWCA 회원이 되어 주세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회원증모 거리캠페인은 앞으로 3회, 매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YWCA

이다정 간사

‘애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



5월 12일(금)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위해 대전중학교와 대전여자중학교에서 ‘애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날 80여명의 대전YWCA 회원들은 1,2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아침밥을 나눠주었다. 학생들이 매년 고대하는 즐거운 캠페인으로 자리잡은 대전YWCA ‘애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은 올해로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세종YWCA

김정현 간사

청춘대학 아우회

세종YWCA는 5월 17일(수) 서천으로 세종 여성노인대학 청춘대학의 아우회를 다녀왔다. 청춘대학 어르신 30명은 서천 아리랜드에서 천연염색 스카프를 만들고, 서



천어시장과 서천국립해양생물자연관을 관람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어버이날 기념행사



제천YWCA가 운영하는 충주댐효나눔복지센터는 5월 10일(수)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역 어르신 300여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정성껏 준비한 특식과 선물을 대접했다. 참여하지 못한 재가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가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전했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애들아, 밥 먹자!' 캠페인



5월 12일(금) 천안여자중학교에서 학생 700여명에게 “사랑합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천안시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천안YWCA 자원활동가, 실무자들이 캠페인에 참가하였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Y-틴, 청년Y 인준식



청주YWCA는 5월 20(토)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17 Y-틴 & 청년Y 인준식을 열었다. Y-틴과 청년Y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틴 동아리 인준장 수여, Y-틴·청년Y 임원 임명, 장학증서 수여를 진행했다.

충주YWCA

김세희 간사

녹색생활강사 양성과정



충주YWCA는 5월 18일(목)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녹색생활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충주시민 20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녹색생활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6회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2곳, 초등학교 돌봄교실 1곳, 중학교 1곳에서 환경교육을 하게 된다.

# 1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응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7(장학위원회)

후원에 참여한 분들(2017. 3.1~5.31)

감미순, 강민석, 강선임, 강태웅, 고영자, 곽옥선, 곽지영, 구영선, 구정혜, 권혁한, 김경경, 김금숙, 김난주, 김미영, 김미혜, 김민수, 김보라, 김선형, 김성아, 김수진, 김신애, 김영숙, 김영정, 김은경, 김은미, 김은선, 김은영, 김인하, 김정린, 김정애, 김정옥, 김지수, 김현지, 김혜정, 노영혜, 명진숙, 문권희, 박서무엘, 박설경, 박영숙, 박영순, 박은실A, 박은실B, 박정원, 박해정, 박현미, 박현숙, 박현주, 박혜란, 박효정, 배유미, 배정미, 백보람, 백혜진, 서희전, 성희영, 송록희, 신인숙, 안경숙, 안정희, 오은경, 오은숙, 오현숙, 오효숙, 원영희, 유성희, 윤정분, 윤정향, 이경미, 이기원, 이명혜, 이명후, 이서영, 이숙현, 이영주, 이예지, 이유림, 이은영, 이정순, 이종경, 이종석, 이종임, 이주영A, 이주영B, 이지윤, 이진용, 이행자, 이혜련, 이희정, 임국아, 임진영, 전옥자, 정동근, 정유진, 조경연, 조수진, 조연정, 지옥정, 진 숙, 차경애, 천유란, 최강애, 최병진, 최종욱, 최홍림, 탁순희, 표대중, 한미미, 한송이, 한영수, 홍인숙, 홍춘길, 홍현정, 황인원, 황지훈, 황혜숙/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군산직할지부, 동해YWCA, 부천YWCA, 서울YWCA, 성남YWCA어린이집, 안산YWCA, 여수YWCA, 전주YWCA, 제천YWCA, 청주YWCA, 충주YWCA

